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디자인컨버전스학부는 기존 학문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 통합적이고

창의분야 특성화 전략과 우수한 교수진의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디자이너 및 아티스트의 양성을 목표로 하여 우리 사회의 융복합 산업 및 디자인,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4 Hongik University All rights resrved.

본 전시는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Design Challenge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결과물이며,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의해서 예산 지원되었음.

다면적인 교육 방식을 제공한다.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학생들은 On-Sil(온실)이라는 은유적 공간의 제안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왔던 작은 것들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On-Sil은 다양한 유기체들이 서로 다른 사유와 맥락으로 공생하는 하나의 장(1)이다. On은 유기체에게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우리들의 시도(switch-on)를, Sil은 우리와 유기체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thread)를 상징한다.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학생들이 벽을 각양각색의 유기체들이 연결되어 함께

허물고 경계를 넘어 만들어내는 융합의 시너지는 조화로움을 이루어나가는 온실과 많이 닮아있다.



산호의 기억 야와야츠

100년 뒤, 산호가 멸종된 후의 지구. 산호가 사라지자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야와야츠는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산호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과거 표본들을 시각, 촉각, 청각 그리고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미래의 지구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산호를 연구해본다.















대기오염으로 산소가 희박해진 세상. 인류는 자립적인 호흡 능력을 잃고 산소를 공급하는 남세균에 기생하며 살아간다. 02ism은 미래 시대에서 남세균의 진화과정을 통해 기생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어 산소의 희소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당이 입는 옷 오소랩, 프리즘

지의류는 땅이 입는 옷으로, 균류와 조류가 공생하는 독특한 생명체이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땅을 풍요롭게 변화시키며,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기초를 마련해준 중요한 존재이다. 프리즘과 오소랩은 지의류를 통해 우리가 간과했던 자연 회복과 공존의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MUSHROOM EXODUS

:Survival in the Anthropocene

토양 오염으로 균류의 소통망은 더 이상 땅속에서 존재할 수 없었다. 살 곳을 찾아 이동하던 버섯들은 인간이 사는 공간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의 모습은 점차 환경에 따라 변형되었고, 이전의 버섯 모습은 조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져본다.







